



우리 집 휴일은?

홍은희/중앙일보 논설위원

오래 전 같은 출입처에서 기사 경쟁을 벌이던 기자들끼리 모처럼 북한산을 갔을 때 — 일이다. 이런저런 얘기 끝에 기자라는 직업의 속성 때문에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한다는 한탄이 이어졌을 때였다.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한 기자가 입을 열었다.

“아내가 아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상담을 해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.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학교를 갔다는 거지. 그런데 정작 교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맥이 쑥 빠졌다는 거야.”

사연인즉 이랬다. 미술시간 ‘아버지’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자 아이는 잠자는 아버지를 그렸다는 것이다. 눈이 휘둥그레진 교사가 이유를 묻자 아이는 “아빠는 집에 있을 때는 늘 잠만 자요” 했다는 것이다. 교사가 문제 가정이라고 여긴 것은 당연한 일. 학교를 다녀온 아내는 남편에게 실컷 편잔을 펴부었다.

‘기자여서 그랬겠지’ 했던 내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확인한 것은 수년 후 한 은행에서 발간한 수기공모 입상작 모음집을 읽고서였다. 회사에 다니는 부모를 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“우리집은 일요일만 되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다”고 고백했다. 할머니가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면 엄마는 “일요일인데 잠 좀 자자”고 되받는 것으로 일요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.

하기야 어느 가정의 ‘일요일 풍경’이 여기서 크게 다를까. 20년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여가활동 조사를 하면 1위가 잠, 2위가 텔레비전 시청이 차

지한다. 아이가 어릴 때는 그나마 피곤한 몸을 추슬러 동물원도 가고 유원지도 가지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아이끼리, 어른은 어른끼리 휴일 보내기를 하는 게 우리네 가정이다.

‘주5일 근무제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. ‘시기 창조’에서 ‘단체적 도입’ ‘완전도입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“우리의 경제 규모에서

는 ‘주5일 근무’는 언제해도 해야 할 일”이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고 보면 직장인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잇달아 쉴 날은 그리 멀지 않은 듯 하다.

주말마다 연휴를 즐기게 된다면 썰렁하기 짝이 없는 휴일문화에서 가정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? 나는 두

가지를 권하고 싶다. 첫째는 가족이 함

께 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라는 것이다. 현대 가정은 지붕만 하나일 뿐 구성원은 제 각각이다. 어떤 가정은 지붕마저 따로따로다. 휴식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 만큼 장애인 등 사회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전국지도를 펴 놓고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답방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.

둘째는 집안 일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.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가정에서부터 체험해야 한다. 선진국에서는 웬만한 자동차 고장은 집에서 전부 해결 한다고 하지 않는가?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등 교환까지 전문일손을 청하는 것과는 이제 작별해야 한다. ‘생활 혁명’은 먼 얘기가 아니다. PPFK

